

자력학습 인터넷 논객들의 학습생활 연구

- ‘아고라 경제토론폰방 교수’를 중심으로-*

강대중(서울대학교, 조교수)*

최선주(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이승협(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요약

인터넷과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사람들의 학습 방식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전통적인 지식인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지식세력인 인터넷 논객의 출현을 가져왔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전후에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토론방 아고라(Agora)에는 ‘미네르바’를 비롯한 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이 올리는 글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논객들이 제도권 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배워나간 자력학습자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제도적 교육기관이나 시험제도와 같은 타율적 학습관리 시스템 밖에서 자기 관리 하에 진행되는 학습활동을 이론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자력학습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자력학습자인 인터넷 논객의 학습생활 양상과 사회경제적 맥락 및 인터넷 환경과 학습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결과, 자력학습 인터넷 논객들은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기인한 공유된 학습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논객들은 아고라 경제토론폰방이라는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학습의 결과를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온라인을 넘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인터넷 기술과 문화,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자력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터넷 논객의 등장과 성장을 추동 및 촉진하고, 한편으로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등 학습생활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제도적 교육관리 시스템 밖에서 학습동기, 학습과정, 학습결과의 사회적 인증까지 형식교육의 장면과는 다르게 구성된 자력학습생활의 양상을 포착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자력학습, 학습생활, 인터넷 논객, 온라인학습, 무형식학습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700-20090057). 이 논문의 초고는 2011년 6월 11일 캐나다 토론토의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열린 2011 Joint Meeting of AERC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 CASAE (Canad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Adult Education)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제1저자.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E-mail : kdj@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 tjswn1@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수료. E-mail : melrince84@naver.com

I. 새로운 자력학습자, 인터넷 논객의 등장

“제도적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과거제도와도 관계없이, 홀로 서책에 의지하여 공부하거나 스스로 선학(先學)을 찾아다니며 공부한 자력학습자(自力學習者)들에게 무관심했다.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 교육기관 밖에서 자기관리 하에 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 관한 교육학연구는 공식적 교육기관에 관한 연구성과에 비해서 보잘 것 없다. 종래의 패러다임이 제도적 교육기관의 교수활동에 치중해 있었기 때문이다” (김신일, 2005: 90)

인터넷 상의 광대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언제 어디서나 이에 접근이 가능한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확산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화사회, 네트워크사회의 도래는 ‘집단지성’(Levi, 2006), ‘대중지성’(천정환, 2008) 혹은 ‘새로운 지식세력인 인터넷 논객’(팔란티리 2020, 2008)의 등장을 불러왔다.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 논객들은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 상에 글로 써서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자신이 다루는 분야와 관련된 학위 혹은 직업 경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올리는 글의 참신성, 논리성, 설득가능성이 네티즌들에게 평가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위기감이 고조될 때 유명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공개토론게시판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이하 아고라경방)에는 이러한 인터넷 논객들이 등장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스의 파산과 원-달러 환율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주류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미네르바는 여러 정보와 정황을 제시하며 주류 언론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던 경제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리적인 글을 게시하여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미네르바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의 일부 글은 ‘IMF 경제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찾아온 경제적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무려 24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거나 게시글 하나에 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고라경방에는 미네르바 외에도 여러 인터넷 논객들이 있었고 지명도 있는 논객들은 ‘고수(高手)’라고 불리었다. 한 논객은 ‘경방을 빛낸 100명의 고수들’이라는 제목으로 100명 고수의 필명과 전문 분야를 적어 올리기도 했다. 이는 당시 경방에 많은 실력 있는 논객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미네르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었다. 실명을 밝힐 필요가 없는 아고라경방의 특성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미네르바를 50대의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전직 증권전문가로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죄로 체포한 미네르바 박모씨는 공업계열 전문학사 학력에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었고 금융계 경험도 전문한 무직자였다. 그는 IMF 경제위기 당시 친구 아버지의 자살을 계기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책과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경제학을 독학(獨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고라경방에서는 박모씨의 구속 이후 그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이가 아니라는 논쟁이 일기도 했다. 전문대 졸업의 경제학 비전공 무직자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미네르바' 글에 대한 공격과 평가절하 움직임도 나타났다. 또 한 라디오 진행자가 “점쟁이 같은 모르는 남의 말을 추종하는지 모르겠다.”, “별 이상한 사람이고 다 속았다.”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력주의와 기존의 고등교육시스템에서 정규 학습경로를 밟지 않은 사람들의 가진 전문성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신일(2005)이 지적한 바대로 자력학습자에 대한 무관심에 더하여 자력학습자의 학습 성과나 능력 수준에 대한 불신과 폄하의 일면이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는 '미네르바'를 지식정보화시대, 네트워크시대의 새로운 학습자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주목하며 시작되었다. 그가 어떻게 자기 학습을 관리했기에 주목받는 인터넷 논객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아고라경방에 미네르바처럼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하여 고수가 된 논객들이 더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로 확대되었다. 이런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상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새로운 교수학습의 양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한 고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일용직 노동자이기도 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고등교육체계 내에서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학습 경로를 밟지 않고 주로 책과 인터넷을 활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해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자력학습 인터넷 논객들의 학습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무형식성이다. 기존의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연구는 제도적인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다양한 양상에 대해 탐색해왔다(Edward et al., 2006; Aberton, 2008). 이른바 무형식학습 개념은 제도교육기관 혹은 학위 제도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양상을 포착하는 기초 개념으로 등장했다. 지역의 공동체나 자발적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무형식학습에 대한 탐구는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활동에 대한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정민승, 2010, Drotner, Jensen, & Schröder, 2008; Selwyn,

Gorard, & Furlong, 2006).

교육제도 외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하는 소위 자력학습자의 다른 특징은 학습생활 전반을 자기 관리한다는 것이다. 교육 기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는 양상이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 주제이다.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이 양상은 매우 복잡 다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소비생활이 소비를 위한 동기와 목적, 합리적 소비를 위한 다양한 전략, 소비의 결과로 인한 만족감의 증진 등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듯 학습생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자력학습자의 경우 학습을 자기 관리하게 된 동기와 자기 관리의 기술적 측면은 물론 자기 관리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학교제도 등에 의해 타율적으로 관리되는 학습의 결과는 학력 혹은 자격이라는 사회적 교환 가치를 갖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자기 관리 학습 역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 결과 역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인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신일(2005)은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교육학의 패러다임을 교육주의라고 명명하면서 교육주의는 교육학에서 학습을 가르치는 것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연구하도록 해왔다고 비판했다. 즉, 교육학이 학교 제도 밖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자력학습자들의 학습생활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김신일의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등장했던 아고라경방의 자력학습 인터넷 논객들의 학습생활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규 교육기관의 도움 없이 인터넷 논객이 될 정도로 경제 지식을 쌓은 고수들의 자기 학습 관리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둘째, 고수들의 학습생활은 사회경제적 맥락 및 인터넷 환경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II. 자력학습, 온라인 공간, 학습생활

1. ‘자력학습’의 개념화와 유사 논의 검토

이 연구는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자와는 다른 차원에서 ‘자력학습’¹⁾, ‘자력학습자’라

1) 자력학습은 영어권에서는 autodidacticism(Solomon, 2003), autodidactic learning(Michael, 2008), self-learning, self-taught 등의 개념으로 다루어져왔다. Solomon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거나 교수 상황이 아닌 곳에서 지식을 얻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autodidacticism을 사용

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력학습'은 김신일(2005)이 제도적 교육기관이나 시험제도와 관계없이 자기 관리 하에서 진행되는 학습활동을 지칭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자력학습은 자기주도학습과 매우 유사해보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개념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자기주도학습은 형식적 교육상황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Caffarella(1993)는 형식적인 학습 장면에서도 학습자들은 학습자원을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통제력을 가진다고 보았고, Merriam(2001: 10-11)은 자기주도학습 연구가 인간학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형식 교육 장면에서 자기주도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권력과 통제 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력학습은 형식교육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배제하며 제도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국한한다. 즉, 형식교육 장면 안에서 작동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김신일(2005:78-79)은 전통적인 교수패러다임의 교육학이 가르치는 활동에 주목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는 학습활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수활동의 관리 하에 있는 학습만을 교육학 연구의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장상호(2000)와 조용환(1997)의 논의는 교육을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관계, 학습과 교수의 협력적 상호관계로 보아 전통적인 교육학의 수동적 학습자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교수자와 학습자의 협력적 상호관계에 몰두하고 교수자가 없는 독자적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경시함으로써 교수패러다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한다. 즉, 자력학습은 기존의 이론적 관심에서는 배제되어 있으나,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든 학습활동을 빠짐없이 포착할 수 있는 확장된 시각”(김신일, 2005: 79)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개념이다.

여기서 단순히 제도기관의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부 자력학습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력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의 또 다른 차이점은 시험제도와 같은 '타율적 학습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포함하느냐의 여부이다. 기존의 자기주도학습자에 대한 논의는 학습자를 자율적 존재로 보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였다(Caffarella, 1993). 이러한 논의에서는 예를 들어,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자기 학습을 관리하고 수행한다면 이는 자기주도학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김신일(2005)은 과거준비를 위해 교육기관 밖에서 스스로 전개한 학습활동은 그 동기와 내용이 국가의 과거 제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타율적 학습관리의 한 유형이지 자력학습은 아니라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등학력을 취득하거나 독학사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독학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주도학습자라고는 부를 수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있지만 자력학습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즉, 단순히 교육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홀로 혹은 그룹으로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학(獨學)과 자력학습은 다른 것이다.

요약하면, 자력학습은 공식적 교육기관 밖에서 학습자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국가나 타자의 타율적 학습관리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력학습을 기존의 자기주도학습과 개념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렌즈로 잘 포착되지 않는 독특한 종류의 학습활동을 포착해내기 위해서이다.

2. 온라인 공간과 학습생활

Castells(2003)는 네트워킹(networking)이 인간 활동을 규정짓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로 명명하였다.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생산과 소통의 양식도 크게 달라지고, 학습의 양식 역시 이전의 조직화된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활동이 부상하게 된다. 실제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여년의 기간 동안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학습 방식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변화는 인터넷 공간이 주요한 학습의 공간으로 부상하였다는 것이다.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보와 자료를 얻고,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전자게시판에서 관심 있는 글을 읽고 쓰며 공부한다. 나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발전은 학습생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학습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학습자들이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실제로 자신의 학습생활을 어떻게 재구성해나가는가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Gee, 2010; Ito et al, 2010; Kidd & Keengwe, 2010).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형식적, 무형식적 학습에 대한 연구물들이 일부 있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는 대체로 형식적 학습 환경 안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Henri(1992)와 Gunawardena et al. (1997)은 학생들이 온라인 토론과정을 분석하여, 온라인 집단 학습에서 5가지 상호작용 유형과 5가지 지식형성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Preece와 Shneiderman(2009)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독자(reader)—기여자(contributor)—협력자(collaborator)—리더(leader) 등 4단계의 역할 및 정체성 변화가 일어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공간에 초점

을 맞추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교수설계라는 도구적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가령, Gilbert & Dabbagh, 2005; De Wever et al, 2009). 반면 평생교육·학습 분야의 연구들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활동에 대해 탐색해왔다(정민승, 2004; 정민승, 2010; Hollenbeck, 2005; Kang, Choi, & Lee, 2012).

첫 번째, 일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성인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있다. Hollenbeck(2005)과 Hollenbeck과 Zinkhan(2010)은 스타벅스, 월마트, 맥도널드와 같은 브랜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이 관찰/표출, 이야기하기, 대화와 토론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면서 현실의 브랜드반대운동과 연결하여 개인적, 집단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민승(2004)은 온라인 여성학동아리 게시판의 글쓰기 분석을 통해, 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협력과 자생적 위계의 학습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민승은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 토론을 촛불집회와 연결시켜 분석하여, 인터넷을 '시민 성장판으로서의 가능성'(정민승, 2010: 168-170)을 가진 공간으로 간주하였다. 이 논의들은 일정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공동체에 대한 연구인데, 이와 관련해 허준(2012)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 사회운동의 출현이 사회운동학습의 담론을 확장시키는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사회운동적인 맥락 이외에 전문성 향상을 추구하는 '온라인 실천공동체(online community of practice)'에서 일어나는 학습자들 사이의 집단 역동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De Laat와 Lally(2004), Gray(2004)의 연구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온라인 토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업 세계에 입문한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와 경력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역할의 분화를 불러오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집단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형식교육의 장면 이외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습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 이슈나 주제, 직업적 성장 등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는 승인된 '회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집단적 수준의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폐쇄성을 띠지 않고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 어떻게 교육적 공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수의 연구물이 있지만(정민승, 2010; Kang, Choi, & Lee, 2012), 이러한 연구물 역시 게시물 분석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집단적인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과 학습생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집단적인 학습과정이 학습자의 다른 학습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게 된 개인적·사회적 동기, 학습과정, 학습의 결과에 대한 관리방식 등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참여자와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아고라 경제토론폰방, 금융위기

이 연구는 다음(Daum)의 아고라(Agora)²⁾ 안에 있는 경제토론폰방(아고라경방)에서 활동한 교수들의 학습생활에 관한 것이다. 아고라는 2008년 5-6월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담론 형성과 촛불 집회를 주도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그 해 9월 리만브라더스 파산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아고라경방에서는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미네르바는 2008년 3월에서 2009년 1월 초까지 약 280여 편의 국내외 경제동향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였다. 미네르바 외 다른 논객들도 해외 신문이나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제 현황에 대한 나름의 글을 게시하였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나 정부의 발표에는 없는 내용이거나,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글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많은 네티즌들이 논객들의 글에 신뢰를 보냈고, 게시글에 대한 질문과 반박 및 답변을 하며 토론을 진행시켜 나갔다.

2) 아고라(<http://agora.daum.net>)는 다음(Daum)의 여러 서비스 중의 하나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게시판 형태의 공간으로 토론, 이야기, 즐보드, 청원 등 크게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회의를 하던 광장으로, 서비스 이름 자체에서 온라인 광장 혹은 공론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고라 토론게시판에는 경제토론폰방, 자유토론폰방, 정치토론폰방 등 13개 게시판이 있다. 아고라 서비스가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 쇠고기 협상에 항의하는 촛불집회 때이다.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아고라에는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순식간에 찬성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고라 경방 글을 다른 곳으로 퍼가고, 댓글 토론을 벌였다. 다음(Daum)은 ‘베스트(best)’라고 하여 사람들의 참여가 많은 글을 아고라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는 글을 중앙메뉴에 노출시켰다. 당시 대부분의 베스트들이 쇠고기 협상과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이러한 베스트 기능은 의제와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 집중시켰다. 4월 말에 촛불집회를 하자는 제안이 나온 뒤에는 5월 말부터 집회에서 ‘아고라’라는 깃발도 집회 현장에 나타났다. 기존의 대학학생회나 정당, 노동시민단체의 깃발이 아닌 서로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온라인 토론공간의 이름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사회 현상이었다. 집회 현장은 아고라에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고, 집회 관련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아고라 사용자들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호응하여 집회 현장에 나왔다. 어떤 네티즌들은 집회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아고라페인, 2008). 이런 촛불집회 당시의 상황은 새로운 온라인 사회운동, 네트워크 정치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조희정, 강창목, 2009). 아고라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몇몇 네티즌들은 ‘자유토론폰방’에서 책을 출간하자는 의견을 내고 이를 위해 ‘아고라페인들’이라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그간 아고라에서 이루어진 토론, 활동, 의미 등을 담은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아고라를 ‘디지털 시대 새로운 광장,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장, 어디로 나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유전자를 지닌 생명체, 집단지성’ 등으로 규정하였다.

미네르바의 글과 몇몇 고수의 글을 베스트 기능에 의해 아고라 메인 화면에 노출되었고 네티즌들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글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었다. 네티즌들은 게시글 바로 아래 짧은 댓글을 달거나 길게 쓸 내용이 있는 경우 덧글을 달았다. 또한 글에 대한 '찬성'과 '반대' 버튼을 눌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었다. 관심 있는 필자가 생긴 경우 필자 이름을 검색하면 그 필자가 이전 쓴 글을 모두 조회하여 볼 수도 있었다.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아고라경방 고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미네르바 박모씨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여러 다른 고수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고 일부 고수는 경방에 썼던 자신의 글을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다. 검찰조사를 통해 미네르바 박모씨가 전문대학 출신으로 경제학 비전공자에 무직자이며 인터넷과 책을 통해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뒤이어 그가 도서관에서 대출했던 도서 목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인터넷 서점에서는 '미네르바 추천도서'라는 홍보문구와 함께 그가 읽거나 추천했다는 경제 서적들이 팔리기 시작했다. 박모씨는 2009년 4월 무죄 석방된 뒤 인터넷에 썼던 글을 중심으로 두 권의 책을 출간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이는 인터넷 논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고라 경제 논객이 책을 낸 것은 미네르바 박모씨가 처음은 아니다. 2008년 11월부터 '아고라 경제논객 000의 책'이라는 형식으로 아고라에서 필명을 날린 고수들이 책을 내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 인터뷰한 5명의 교수 중 4명도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각각 1~2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2. 연구 참여자와 연구 절차

이 연구는 경방 고수들의 학습생활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경방 고수와 면담이 핵심적인 자료수집 방법이었다. 그러나 고수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고라경방에는 필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고수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다. 아고라 경방에 두 차례에 걸쳐 연구의 취지를 밝히며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적합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는 실패했다. 책을 이미 낸 고수들의 출판사로 연락하여 연구 참여를 간접적으로 요청했지만 상당수는 거절당하였다. 책을 낸 교수 중 한 명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책에 공개하여, 이메일을 보내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 고수의 소개로 다른 교수들 3명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네르바 박모씨의 공개 재판을 방청하면서 또 다른 고수를 만나 면담 할 수 있었다. 미네르바 박모씨와의 면담은 그의 변호인을 통해 시도하였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미네르바 박모씨의 언론 인터뷰 기사, 경방 게시글, 출판한 책 등을 수집하여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아

고라경방 교수는 5명으로 <표 1>은 각각의 간략한 인적사항이다.

<표 1> 주제보자 목록

	가명	성별	연령	학력	현직
1	머큐리	남	30대	고졸	건설현장 노동자
2	아폴로	남	30대	대학원 졸업	사회복지기관 근무
3	유피테르	남	40대	대학 졸업	보험 설계사
4	유노	남	30대	대학 중퇴	프리랜서
5	넵툰	남	20대	대학 졸업	금융회사 근무

5명 중에 경제학이나 유사전공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은 없었다. 사회에서 경제학 전문가로 인정받는 전통적인 방식은 대학원에서 일정한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방식이다. 보험회사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교수의 경우 학부에서 경영 관련 전공을 했지만 자신이 학부를 졸업할 때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 5명 모두 본격적으로 경제 관련 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고라경방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머큐리는 30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현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으며 인터뷰 당시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었다. 아폴로 역시 30대로 학부에서는 임학이 전공이었으며 사회복지학으로 석사과정을 마친 뒤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폴로는 아고라경방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유피테르는 40대 초반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유피테르는 경방의 다른 교수인 새턴과 함께 책을 냈는데 새턴은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재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는 것을 알려져 있다. 유피테르를 통해 새턴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유노는 30대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나 중퇴하였다. 신문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면담 당시에는 경제 관련 책을 내고 여러 사업을 구상 중이었다. 넵툰은 20대로 대학에서 중소기업 관련 전공을 했고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면담 당시에는 책을 집필 중이었다.

아고라경방 교수들 외에도 이 연구에서 교수들이 활동하는 아고라경방의 탄생 배경, 변화 과정, 특징 등을 이해하기 다움(Daum)의 관계자 2명을 면담했다. 또한 아고라경방 교수를 비롯해서 인터넷 논객들의 책을 다수 출판한 출판사의 편집자 김재준(가명)과 면담을 통해 인터넷 논객의 온라인 글쓰기와 출판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교수들의 학습생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교수들이 올린 게시글을 조회하여 읽어보고 그 글에 달린 댓글을 함께 읽으면서 게시글의 개수, 빈도, 글의 성격, 댓글의 개수, 댓글의 주요 성격, 댓글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보았다. 게시글과 댓글의 수가 워낙 많으므로, 조회수

가 높은 상위 2개의 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교수들이 출판한 책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면담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지속적 비교분석 방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Method)을 활용하였다(Merriam, 2009). 연구자들은 교수들의 면담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분석 내용을 서로 비교 토론한 뒤에 다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별 교수에 대한 이런 분석과 함께 교수들 간의 비교 분석하는 과정도 동일하게 거쳤다.

IV. 아고라경방 교수의 학습생활 양상

이 장에서는 아고라경방 교수의 학습생활의 양상을 (1) 학습동기: 사회적 기원 (2) 교수의 학습관리 기술(技術) (3) 자극과 채무감: 아고라경방 맥락 속의 교수 (4) 아고라경방을 넘어서: 출판과 사회적 인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습동기: 사회적 기원

교수들의 학습동기는 사회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996년 종합금융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유피테르는 사회 초년병 시절 IMF 경제위기를 맞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5년간 근무했던 첫 직장에서 IT 벤처기업으로 옮겨 4년여를 더 근무할 때까지도 직업 생활과 경제 공부는 큰 관련이 없었다. 경제는 직업 생활 보다는 개인적으로 몰두해있던 주식 투자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주식 투자 초기에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1천만 원의 종자돈이 10억 원으로 커졌다가 1억 원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는 주식 투자는 거시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언론 기사에 의존하는 정보력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는 것이 그가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였다. 그는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돌아다니던 중 아고라경방을 알게 되었다.

2008년 3, 4월경이었을 것 같아요. 아고라라는 데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글을 보다 거기에 팔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다양한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소식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금씩 제가 아는 바 내에서 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유피테르)

학부에서 임학을 전공했던 아폴로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고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일종의 시대의 변화를 직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확산되던 당시 그는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구입을 위해 빌린 은행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았다. 촛불집회에서 아고라 깃발을 본 그는 인터넷에서 아고라를 검색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아왔어요. 촛불집회 한참 할 때 경제... 사회 전반적인 혼란스러움도 있고 제 생각에는 사회전반이, 세계전반이 변곡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럼 경제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저의 삶의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럼 경제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하다가 아고라의 경제방에 클릭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는 난리가 나 있더라구요.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올려져 있어서, 근데 이해는 안가고. 사람들이 전부다 ‘난리가 났다’ 뭐... 그때 유행했던 말이 ‘닥치고 현금’ 이런 거였거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이해하려고. (아폴로)

증권사에 다니던 넵툰의 경우에는 미네르바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읽은 뒤에 아고라라는 공간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다.

그게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터지기 전일 거예요. 그전까지 저도 인터넷이란 공간에 단 한 번도 글을 남겨본 적도 없었고, 카페에도 그렇고. 그냥 인터넷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인터넷에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던 거 같아요. 그전까지는 전혀 인터넷 활동이 없었어요.(넵툰)

고수들이 아고라라는 공간을 찾게 되는 과정은 그들이 공유하는 어떤 공통된 이유에서 필연적으로 출발한다기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에서 비롯된 우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말이라는 특정 시기에 아고라 공간에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 출현하게 된 것은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고수들의 학습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수들이 아고라를 만나게 된 우연적 계기의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던 경제 위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시의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IMF 경제위기부터 정확히 10년 뒤 찾아온

글로벌 경제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했다. 미네르바는 “IMF 때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큰 피해를 입었다. 친구 아버지는 주식 실패로 자살했다. 그때 ‘나도 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일간스포츠, 2009)고 경제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소개한 바 있다. 앞서 살핀 유피테르, 아폴로, 넵툰 역시 2008년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경제 공부에 매진하게 된 계기로 작동했다. 당시 언론사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유노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경제 공부를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이처럼 교수들이 경제 공부를 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교수들이 아고라경방에 처음 접근하게 된 계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경제위기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려는 동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경제위기 상황은 교수와 아고라경방의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제 학습이라는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배경이 되었다.

2. 교수의 학습 관리 기술(技術)

아고라경방에는 두 종류의 교수가 존재했다. 일부 교수들(넵툰, 유피테르, 유노)이 경제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아고라를 만난 반면, 다른 교수들(머큐리, 아폴로)은 아고라경방에서 처음으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 교수들은 각기 다른 수준에서 아고라에 참여했지만 자력학습을 통해 아고라 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교수들은 나름의 자기 학습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선, 교수들은 자신들의 평소 독서 시간 관리에 매우 철저했다. 일 년에 천만 원 가량을 도서 구입비로 사용한다는 유피테르는 자료를 읽고 쓰기 위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 해외 경제 소식을 단순히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문제의 근원과 그 대안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자부했다. 대학 중퇴 뒤 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유노는 온라인 서점을 통해 매달 30만 원 이상의 책을 구입해 최우수등급 회원을 유지했다.

글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 자기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글 쓰잖아요. 거의. 제 블로그에 거의 일주일에 네 건의 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섯 시 반에 일어나요. 사무실에 나오면 여섯 시 반이에요. 저는 열 시에는 상담하러 가거든요. 열 시전에 새벽에 나와서 글을 읽어요.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정리하며 글을 쓰는 거죠.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상담하러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거죠. 밤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

날 상담할 사람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늦게까지 자료를 만들고 퇴근하면 열 시 열한 시죠. 낮에는 한국경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고, 12시에 가고,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주말이나 되도록 서울시내에서는 차를 안 끌고 지하철 타고 책 읽고. 제가 어젯밤에 술을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근데 제 스스로 정해놓은 기상시간이 여섯 시 반이거든요.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 뭐라도 보거든요. (유포테르)

[직장이] 끝나면 바로 뚜레쥬르 갔어요. 집에 있으면 썩지니까. 책 읽고. 들어오면 열시 반쯤. 그리고 자는 거죠. 그렇게 월화수목금은 빠지지 않고 하고. 애들이 제가 재미있으니까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려면 뚜레쥬르로 와라 해서..... [책을] 이틀에 1.5권. 1.5나 1권 [읽어요]. 왜냐면 주말에는 안 읽으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가니까.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봉사활동. 주말에는 사람 만나고 주일에는 교회 있고.(유노)

고수들은 자신들의 독서를 위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단련된 학습자들이었다. 넵튼은 재학 시에는 등학교 시간에, 취직 뒤에는 출퇴근 시간에 늘 책을 끼고 살았다. 건설현장 일용직에 종사하던 머큐리는 일하지 않는 날이면 공공도서관으로 매일 아침 출근해 시와 소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책을 다 훑어보았다고 했다. 깊이 읽지는 않았지만 얇고 넓게 읽은 것은 이후 아고라경방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아폴로는 아고라경방에서 경제공부를 하기 전에 브랜드마케팅 분야를 공부했었는데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책을 찾아서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고수들은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를 중시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이를 통해 공부를 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의 공부 내용 정리 노하우를 개발해 적용하기도 했다. 넵튼은 증권사에 입사한 이후 경제 관련 보고서를 매일 새벽까지 읽으며 금융경제의 메커니즘을 스스로 깨달으려 노력했다.

증권사에서 자사 뿐 만아니라 타사 리포트를 하루에 삼십 개를 읽었어요. 경제 채권 펀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국내 국외. 주식전략 파생. 이런 보고서를 분야별로 세 개씩. 새벽 두 시에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결론이 하나로 모아져요. 우선 분야별로 요약했어요. 예는 생똥맞은 얘기. 그러다가 그걸 요약하게 됐죠. 이 보고서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런 과정을 한두 달했어요. 매일 삼십 개씩. [경제학]원론이나 이런 것을 참조하지 않고, 이런 걸 뉴스와 연관시키고, 실제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고서를 읽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유추하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감이 생기더라구요. (넵튼)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유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08년 언론사에서 영문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글로벌 경제위기를 다루는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낀 뒤 그는 아침 출근길에는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읽고, 매일 400개의 영문 경제기사와 40개의 경제관련 연구보고서를 통독했다. 퇴근 뒤에는 경제관련 도서를 카페에 앉아서 읽었다. 그는 이렇게 읽은 자료들을 추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해 공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직장 생활을 통해 실물 경제의 흐름을 살피며 경제 공부 기회가 있었던 다른 교수들과 달리 머큐리와 아폴로는 아고라경방 활동 이전에는 경제 관련 공부와는 무관했던 교수들이었다. 이들에게 아고라경방은 경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터전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아고라경방의 특정 교수들의 게시글로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 머큐리의 경우에는 미네르바를, 아폴로는 새턴을 일종의 스승으로 여기고 그들의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경우였다. 미네르바와 새턴의 게시글을 경제 관련 지식 없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검색엔진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스승의 게시글을 이해하는 길을 밟았다.

그래서 그분[새턴]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던지 유동성 함정이라던지...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계신 분이어서 유동성함정이라고 안 적으시고 영어로 적어버리셨어요.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알기 위해서 웹사이트 상에서.. 단어의 의미를 일단 알아야 해서 웹사이트 상에서 그 용어를 쳤고, 그럼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찾고. 그것이 000투자교실 이라고 하는. 0000닷컴이라고 하는 곳에. 000투자교실이란 곳에 경제칼럼인가 투자칼럼인가 있는데 거기에는 개념을 설명하신 분의 글이 많아서 그것을 다 읽었죠. (아폴로)

아폴로는 다른 교수들이 관련 서적을 열심히 읽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철저하게 인터넷 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에 의존했다. 그는 새턴에게 영향을 끼친 경제학자들이 미제스나 하이예크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도 이들의 저서를 구입하지 않고 국회도서관에서 원문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공부를 했다. 그에게 있어 인터넷은 경제 공부 동반자였다. 머큐리는 미네르바의 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영어로 된 경제 게시글을 인터넷의 자료만을 참고해 번역하는 경험을 했다.

썩 보다가 보니까 미네르바가 제일 썩.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막 초창기에 막 일주일 걸려서 하다가 내가 했는데. 사실은 미네르바 글이 아니고 영어로 원문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를 읽는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좋은 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썩

놓고 가.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아, 나도 학교 다닐 때 영어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안 나와도. 무슨 뜻인지 알아내고야 말리라. 그리고 일주일이 걸려서 그 다음[Daum] 사진 있죠. 다음 사진에 검색하면서 꼭 찾았어요. 그게 지금, 공황, 그 상황을 이제 막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걸 딱 일주일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나만 보고 싹 지우긴 그렇잖아요. 책까지 굳이 안 봐도. 그리고 책을 볼려면 귀찮으니까 검색을 해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검색하면 또 대부분 나와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 블로그에. 블로그에마다. 그러면 책까지 굳이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머큐리)

머큐리와 아폴로는 그들이 스승으로 삼은 사람들의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야의 기본 개념과 논리들을 몇 달에 걸쳐 스스로 깨우쳐갔다. 이를 통해 그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스승의 글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아고라 이용자들에게 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머큐리가 미네르바의 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수많은 아고라 이용자들이 머큐리의 게시글에 열성적으로 호응하면서 그의 설명글을 ‘(암호)해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머큐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에 의해 동기 부여가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네르바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독’을 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재밌잖아요. 사람들을. 이게요. 학문적 용어로 하면 영향력.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그 일종의 권력이죠, 그것도. 영향력이 권력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 내가 노가다를 하면서 사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막. 사회에 어떤 원망, 불만이 쌓여 있던 사람이 인터넷에서 글을 꼭 써서 내면 사람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인정받는 느낌. (머큐리)

아폴로의 경우에는 새턴이 작성한 모든 게시글을 석 달 동안 공부한 이후, 새턴의 게시글을 읽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글로 작성했다. 그는 글을 쓸 때마다 새턴에게 자신이 이해한 바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는 댓글을 남겼으며, 새턴은 이에 간략한 답변을 남겼다. 아폴로의 게시글에는 새턴의 원래 글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폴로의 글은 이해할 수 있다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머큐리와 아폴로는 고수가 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각각 미네르바와 새턴의 글을 공부하고 이해한 바를 글로 쓰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아고라경방에 기여하는 고수 수준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수들은 자신들의 학습을 위해 규칙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

추고 있었으며, 학습할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공식적 제도 교육기관을 통해 경제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도권 밖에서 각자의 방식과 아고라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경제 지식을 쌓았다.

3. 자극과 채무감: 아고라경방 맥락 속의 교수

고수들이 자력으로 경제 공부를 해나갔다는 말은 그들 홀로 학습을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고수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각자의 학습 방법을 만들고, 학습 내용을 선택하는 등 독자적으로 공부를 해나갔다. 그러나 '자력학습'이라는 말은 '독학'과는 다르며 실제로 고수들 또한 혼자만의 힘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 지식을 터득한 것은 아니었다. 아고라경방에서의 다른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은 고수들의 학습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수들은 아고라경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선 고수들은 아고라경방에서 접한 다른 고수들의 글을 통해 자극과 영감을 얻었다. 예컨대, 넵튼은 미네르바의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존경심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증권사 직원으로 매일 고객들을 만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주가 폭락 상황에서 스스로 무력감을 느꼈었다. 미네르바가 아고라경방의 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올리는 게시글은 그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자신 또한 미네르바처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순한 증권계 영업사원이 아니라 나도 뭔가 시장을 보고 분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움이 되고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미네르바] 글을 죽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존경심, 처음에는 존경심이었어요, 경외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등감. 그때부터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글 남기고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요. (넵튼)

유피테르는 새턴의 게시글이 영감을 준다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그로부터 배웠다. 유피테르는 새턴과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아고라에서의 인연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경제 관련 책을 쓰면서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인터넷에서 만났죠. 경방에 글을 쓰다가 그분의 글의 깊이는 저는 깊이보다는 넓다고

치면, 새턴님의 글은 깊어요. 그분도 서울대 졸업하셨으니까. 그분은 생물학교수예요. 연구 교수예요. 그분이 글을 쓰시면 워낙 깊어서 물론 물어봐야죠. 아폴로씨처럼. 댓글을 달고 물어보다가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시고 하면서 친해졌죠. ... 새턴님도 저 2008년 9월인가에 한국갑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연락 좀 꼭 메일로 주세요. 뷁고 소주 한 잔하죠. 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출판사에서 마침 저한테 책 한번 써보자 했었거든요. (유포테르)

아고라경방에서 교수들이 받는 자극은 다른 교수들로부터 받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아고라경방 일반 이용자들도 교수들에게 공부를 위한 큰 자극이 되었다. 넵툰은 그가 아고라경방에 작성한 첫 번째 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무척 놀랐다고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댓글. 그것도 80%는 찬양의 댓글이었고. 처음에는 오, 이게 뭐지 그런 느낌. 사람들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지금은 그런 걸 초월했거든요. 처음에 그런 느낌 받았을 때는 온라인게임에서 엄청난 장비로 무장하고 있는 지존들 같은, 중독된 느낌. [새로운 댓글을 확인하려고] 일 분 마다 F5를 치면서 새로 고침하는... (넵툰)

아고라경방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교수들의 학습에 촉매로 작용했다. 넵툰은 다른 아고라 유저들의 반응에 고무되어 더 많은 보고서와 신문, 책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아폴로 또한 자신의 글에 대한 아고라경방 이용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추가적인 학습의 발판으로 삼았다. 물론, 아폴로는 새턴의 게시글과 댓글로부터 배웠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도부터도 그가 경제 상황에 관련해 쓴 게시글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을 즐겼다. 그는 아고라경방의 익명성을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타인의 의견들에 대해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아폴로와 많은 다른 교수들은 일반적인 아고라 이용자들의 즉각적인 반응들을 통해 자극받고, 이를 밑거름 삼아 교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검증받고 싶었고요, 새턴님의 글을 배우고 맥락을 배워서 글을 올리되 배우는 건 한 사람한테 배우되 검증받는 건 여러 사람들에게 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고라에 올리는 걸 선호했고, 또 게다가 아고라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렸던 때가 있고... (아폴로)

교수들이 아고라경방에서 영감과 자극,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성장하기도 했지만, 아고라경방이 항상 친근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고라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익명성 보장은 한편으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불합리한 주장들 또한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익명성 뒤에서 아고라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입장에 따라 편을 갈랐다. 당시 정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 아고라 이용자들은 서로를 경멸하는 명칭으로 상대를 낙인을 찍으며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수들 역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드백에 직면해야 했다. ‘노빠’ ‘명빠’ ‘알밥’ ‘줍비’ 등 경멸과 비난이 난무했던 아고라경방 댓글 분위기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들은 각기 달랐다.

근데 아고라는 댓글 문화니까 평가가 순간 나타나요. 어떠한 상승효과가 나타나냐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공부하게 되고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글보고 찬성하고 일단 줄을 서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평가받고 비교되고 즉시 누가 우위에 있냐 토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ダイナ믹하게 일어나서 못 견디는 사람은 튕겨나가고, 어떤 사람은 달관하고. (유노)

유노는 부정적인 댓글들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자극으로 댓글들을 받아들였다. 아폴로 역시 익명성에 기반을 둔 댓글 문화를 즐겼다. 그는 피드백 받는 것을 즐겼고, 신랄한 비판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넵튼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신랄한 피드백에 놀랐지만, 이제는 댓글의 많고-적음, 좋고-나쁨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OOOO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만 하면 반박글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뭐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잖아요. 악성댓글도 많아요. 즐겼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게 뭐지 지워버릴까.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 년, 6-7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 이런 애들이 있네. 진정으로 내가 발전하려면 애네들도 포용해야겠다 이런 애들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변해서, 개를 만나자고 했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형이예요. 자산공사, 부티크 같은 데, 조그만 운용사에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말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장을 맨날 보는 분들이고. 저와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형하고는 정보를 잘 주고받았어요, 형 이긴 어때요, 이긴 어때요 물어보기도 하고. (넵튼)

유피테르의 경우에는 아고라경방의 비호의적인 피드백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였다. 그는 아고라경방에서 새턴도 만나고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 미네르바 구속 사건 이후 아고라경방을 떠나 자신의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몇몇 다른 교수들을 블로거로 초대했다.

욕먹기 싫고요. 내가 글 쓰면서 이렇게 욕먹어야 되나. 그럼 뭐 써보지. 지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게시글 하려고 글을 써보면, 그냥 앉으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건데. 근데 가끔 무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신 생각은 그러냐.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되는데 막...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피테르)

한편, 교수들이 아고라경방에서 받은 자극과 피드백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 지식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아고라경방에 일종의 부채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채의식 또한 교수들로 하여금 아고라경방에 경제 관련 글을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미네르바의 구속과 악성 댓글과 같은 적대적인 문화 등으로 인해 유피테르와 같이 많은 교수들이 아고라경방을 떠날 때에도 일부 교수들은 아고라경방에 남아 계속해서 활동했다. 아폴로는 아고라경방이 “진흙탕”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아고라경방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글을 썼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까지 공부했던 이유는 정말 답답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고라라는 공간에서 제가 글을 올리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까지 달아 주신 분들 덕분에 동기가 생겨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기에는 저한테 동기를 계속 유지해주시고 아니면 비판해주 시거나 더해주시거나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있다고 할까요. (아폴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고라경방이라는 맥락은 교수들의 자력학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교수들은 아고라경방에서 다른 교수들과 이용자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았으며 이러한 자극은 그들의 학습을 촉진했다. 또한, 익명성이라는 아고라라는 특성은 교수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아고라경방이라는 공간의 학습 환경을 훼손시키고 심할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아고라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교수들은 아고라경방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 지식이 성장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채의식으로 남아 그들이 아고라경방에서의 학습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4. 아고라경방을 넘어서: 출판과 사회적 인정

미네르바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명성을 얻을 무렵 아고라경방의 다른 논객들도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부가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기소한 이후 오히려 아고라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더욱 주목과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상황은 출

판사들이 아고라경방의 고수들을 새로운 종류의 저자로 주목하는 배경이 되었다. 출판사들은 고수들을 충성도가 높은 고정 독자를 보유한 저자로 본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이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로 대표된 인터넷 아고라 논객들 이야기들이 이슈가 됐었고,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정말 커지고, 터지면서 그 분들의 네임 밸류가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일즈 파워를 크게 갖게 됐고, 서점, 이제 출판사 측에서도 세일즈 파워를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김재준, 출판사 관계자)

미네르바 관련 뉴스들을 접하면서 김재준은 고수들의 유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고수들이 전통적인 저자들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김재준의 출판사에서는 고수들의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노는 이렇게 접근해온 출판사의 연락에 상당히 놀랐다고 회고했다.

저는 책 낼 생각 안 했죠. 50대 되면 해야지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유피테르님을 통해 알았어요. 그쪽 출판사에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유피테르님이 저를 소개시켜줬어요. 처음에는 놀랐죠. 너무 어리니까. 제가 반문을 했어요. 저를 뭘 믿고, 대화하는 중에 좋았어요. 유피테르님이 말씀하신 게 책을 쓰니까 공부가 되더라. 그때 인생 최대의 고민을 한 거 같아요. (유노)

누가 저한테 책을 쓰겠냐고. 작년에 경방 고수들 책 내는 게 한참 유행일 때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나는 고졸에 노가다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쓴 책이 팔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내겠다는 사람이 없어.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은 구체적인 기획 안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달라는 거야. 내가 책을 써봤어야지. (중략) 네. 그 분은 아직도 나한테 책을 써 달래요. 근데 기회는 없어요. 사실 하나. 하나 써줬어요, 원고를. 하나 써준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은 아직도 책을 안 내. 왜.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이 써준 책을 냈다가 안 팔리면 광이거든. (머큐리)

결과적으로, 출판사의 접근 이후, 유피테르와 아폴로, 유노, 넵툰은 김재준의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아고라경방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분명 여러 이야기 나올 거예요. 책을 쓰니까, 어망을 관리하니 뭐니. 하지만 그걸 떠나서 아고라에 계속 글을 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배웠고 책도 아고라 덕에 쓰게 됐고, 아고라에 빛이 많다고 생각해서... 할 얘기도 많아요. 아직 못 쓰고 있는데 설 끝나면 본격적으로 쓰지 않을까. 책이 하난 끝났고 다음 책은, 써봐서 피드백도 많고. 잘 조율해서 데

이타 쌓으면... 아고라는 폐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쓸듯. (유노)

일반인들이. 지금은 아고라 때문에... 예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쓸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죠. 기자 뭐 이런 정도나 쓸 수 있지. 일반인이 책 쓴다고 하면 네 돈 내고 네가 써라 그러거든요. 근데 아고라 때문에 이게 그런 책들이 쪽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충분히... 교수나 되어야 책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유피테르)

고수들은 아고라경방 덕분에 자신들도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양한 수준에서 아고라경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고라경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어느 순간부터 ‘고수’라 불리고 결과적으로는 책을 쓰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책을 쓰는 과정은 또 다른 학습의 과정이기도 했다. 고수들이 아고라 및 블로그 등에서 작업한 글들이 있었고 뛰어난 필력의 소유자이고 했지만 책을 쓰는 것은 다른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글도 단문이든 장문이든 쓰다보니까 늘고,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되서 책 한번 쓰려니까 책 백 권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 쓰시는 분들 대단하다. 결국은 유명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단련하는 과정. 유명해져서 내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비즈니스의 이점. 그리고 내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유피테르)

토요일 일요일은 다 도서관에 있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익숙해졌고, 너 뭐 하고 있나 그러면 그냥 땡가땡가 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해요. 제가 제 휴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반기 안에는 해결을 하고 싶거든요. 원래 책 출간 계약이 2월말이에요. 약속은 지키고 싶는데...(중략)... 근데 어디서 가져온 것도 있고, 어디서 가져와서 그대로 써놓은 것도 있고, 근데 책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서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신중해지더라고요. 어디서 그냥 긁어오면 편한 건데, 직접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일일이 출처 다 기록해야 되고 논문 쓸 때처럼. 논문 쓸 때, 출처 이런 거 생명이죠. (넵툰)

내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실력이 미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십 년 해온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단기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나는 당분간 시류를 보는 책을 쓰지 말아야겠다. 그건 내공이 쌓여서 쓰고 대신 일반사람들이 경제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을 쓸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고민 끝에 부딪히자 해서 부딪히고 나면 내가 성장할 것이고 해서 썼어요. (유노)

이처럼, 고수들이 책을 쓰는 작업에는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했을 뿐더러, 아고라경방 이

용자와는 다른 독자층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한, 수백 페이지의 원고를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아고라에 게시글을 쓰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일이었다. 인터넷 게시글을 쓸 때와는 달리 저작권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극복할 필요도 생겨났다.

고수들은 출판의 결과로 그들의 영향력이 온라인 공간 뿐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경험했다. 출판사, 신문사 등 기존의 매체들과 이를 향유하는 오프라인 기반의 사람들도 고수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주위에 보면, 제가 가는 길로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한 것처럼 전혀 정규... 어머니는 제가 석-박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사업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유노)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내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이 했던 중요하지 않고, 보험한다고 하면 안 만나주려고 하죠. 말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그런데 글을 계속 써오고 책을 내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단 제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판 안 만나주려고 하셨던 분들이 만나 주려고는 하시니까. (유포테르)

결국, 고수들은 책을 쓰는 과정을 거치며, 영향력 있는 일종의 지식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온라인 논객과 오프라인 출판사의 만남과 이 과정에서 책이 출판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지식인의 출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V. 논의: 아고라경방 교수들의 자력학습 특성

2000년대 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게시판을 매개로 출현한 고수들의 학습생활을 자력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탐색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력학습의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하의 논의는 자력학습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교육 제도 외부에서 학습자 스스로 관리하는 학습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 연구의 사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지식정보화사회, 네트워크사회의 도래가 자력학습자로서 고수의 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쉽게 찾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교수들의 자력학습의 조건이 되었다. 이 조건은 지식의 위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자력학습자의 필요와 흥미에 따른 비선형적 학습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머큐리, 아폴로의 경우 구글(google)과 같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필요한 개념을 잘 설명해놓은 홈페이지, 블로그, 강의 동영상 등을 찾아 읽고 보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 동시에 인터넷 자료는 대부분 관련된 자료들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 관련된 많은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을 보면서 공부의 텍스트를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었다. 유노나 넷플릭스 회사의 정보망을 통해 얻은 신문기사와 경제관련 보고서를 통해 공부를 시작했다. 즉, 교수들은 선형적인 논리에 따라 구성된 '경제학원론'과 같은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공부를 통해 경제 지식을 습득했다. 물론 이런 공부 설계는 자신이 흥미를 느낀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는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성인기 학습의 주요 특징이 실생활의 필요에서 스스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그 필요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Knowles, Holton, & Swanson, 2005)을 고려하면 제한된 측면으로 공부가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단점으로 치부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인터넷에 위계 없이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정보들은 일종의 "평평해진 세계"(Friedman, 2006)에서 자력학습자의 출현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Davidson과 Goldberg(2009: 24-25)은 이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디지털 기술은 자력학습(self-learning)을 드라마틱하게 촉진한다. 웹의 인터페이스는 점차 덜 수직적인 반면 더 수평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왔다. 웹은 정보의 확산을 촉진시켜왔다.....웹의 접근성의 수평화는 또 다른 놀라운 효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지식 생산을 수평적으로 만들었다. [학위를 통해] 인정받은 엘리트들의 지식 생산은 축소시키고 있지만 공동의 협동으로 지식이 창출되는 것은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교수들의 자력학습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아고라경방에서의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 강화되었다. 교수들은 아고라경방에서 자신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아고라경방은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아닌 운전자도 존재하지 않는 토론게시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지만 아고라경방의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들의 글쓰기와 공부에 가속도를 붙였다. 그들의 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간다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더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자극이 되었던 것이다. 정민승(2010)은 인터넷 카페의 글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독특한 위계 체계를 지적한다. 즉, 자발적 복종에 기초한 가르치는 사람의 권위가 인터넷 카페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권위는 공식적

인 카페 운영진으로 선출되거나 영향력 있는 게시물의 작성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 운영진과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아고라경방의 경우 교수들은 후자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 권위는 항구적이 아니다. 계속해서 의미 있는 게시물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는 인정될 수 있다. 아고라경방의 경우 교수들의 가르치는 권위는 이용자에게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사제관계가 내포하는 보다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방식의 위계와는 달랐다. 아고라경방의 게시글 하나 하나는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게시물의 작성자가 아니라 다른 게시물을 읽는 위치일 때 교수는 자발적으로 학습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정민승은 이를 “카페에서 회원들은 항상적 학습자와 일시적 교육자 사이를 진동한다”(142)고 표현했다. 토론게시판이던 아고라경방에서 활동하던 교수들의 사례는 학습자가 자신의 배움을 나누는 행위가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될 때 자력학습이 더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아고라경방 교수들의 자력학습은 정치사회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교수들의 본격적인 경제와 관련된 자력학습 활동은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와 2000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사건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이 아고라경방에 글을 쓰며 교수로 부상하는 과정에는 주류 언론에 의해 제공되던 상황 인식에 대한 불신이 바탕에 깔려있었다. 아고라경방은 국내 언론이나 정부 발표에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올라오는 통로가 되었고, 교수들은 이런 정보 유통의 중심이 되었다. 해외 언론과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번역하여 올리면서, 정부와 국내 주요 언론이 어떤 정보를 왜곡하고 감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현재와 앞으로 경제 동향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잡한 경제현상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경제위기로 불안해하며 아고라경방을 찾았던 일반인들은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진단을 주류 언론이나 주류 지식인들에게서 얻지 못했다. 교수들은 이 틈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한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아고라경방의 이용자들은 가진 자 대 가지지 못한 자, 친정부주의자 대 반정부주의자로 대립하며 교수들의 글에 열광했다. 미네르바는 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천민’들의 스승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천민들을 위해 계속 글을 써 달라’는 식의 댓글들이 무수히 올라왔다. 교수들의 이 영향력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약하는 것으로 다루어졌지만,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력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었다. 많은 교수들이 아고라경방을 떠나거나 게시글을 자진

삭제했다. 아고라경방 고수의 자력학습과 관련해서 1985년 제4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된 학습권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UNESCO, 1985).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학습권은 모든 자력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보장하는 기본권 선언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 아고라경방 교수들의 자력학습은 학습의 사회적 인정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견고한 학력주의로 인해 학교 중심적 학습 인정 방식이 거의 유일하게 통용되고 있다. 교육 제도 외부의 자력학습의 결과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교육기관에서 선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방식의 논문을 썼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수들의 경우 그들의 전문성, 즉 자력학습의 결과를 인정받는 방식은 아고라경방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출발했다. 출판사는 교수들이 온라인에서 확보하고 있는 확고한 독자층과 시장성을 겨냥해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오프라인으로 이동시켰다. 경제 관련 책들이 대학교수나 기자와 같은 전통적인 전문가 집단에 의해 출간되었던 관행에 비추어 보면 교수들의 경제 서적 출판은 매우 신선한 것이었다. 교수들이 새로운 저자 그룹으로 부상한 것이다. 책 출판을 통한 자력학습의 사회적 인정은 출판사라는 상업적 세력과 판매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출판은 교육 제도 외부에서 자기 관리 하에 진행된 자력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고라경방 교수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VI. 결론

이 연구에서 살펴본 자력학습은 그 개념 자체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자력학습은 학교 등 주로 제도교육 내부에서의 학습 현상에 주목해온 전통적인 교육학 연구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매우 오래된 학습 현상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평생교육학은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개념으로 학교제도 외부의 학습 현상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며 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학교제도 외부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습 현상을 단순하게 지칭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형식학습은 공식적인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 공간에서의 학습을 의미하는 차원으로 쓰이고 있다. 무형식학습은 개념상으로는 형식과 비형식 교육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생활을 포착하지만 그 용어 자체가 형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위 개념과 이론을

생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험 세계에 관한 개념이나 이론의 생성은 현상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형식이 없다는 것을 지칭하는 무형식학습에 형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 연구에 있어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개념이 교육학의 학습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그 한계도 매우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이 학습의 공간에 주목한 것과 달리 자력학습은 학습자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자력학습은 학습자가 교육기관이나 시험제도 등에 의해 타율적으로 관리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학습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영위하는 학습생활을 의미한다. 이런 자력학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로 성인기 학습생활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연구에서 살펴본 아고라경방 교수들의 사례는 교육적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은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형식 교육을 받지 않고도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는 학습자의 출현은 어쩌면 평생교육의 실천 전통에서 오랫동안 회귀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의 여기저기에서는 자력학습을 촉진하는 여러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자력학습자의 학습생활을 공간적 측면에서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Kang, Choi, & Lee, 2012). 또한 자력학습자에 대한 학습생애사(강대중, 2009) 탐색을 통해 자력학습의 발전 단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력학습에 대한 연구는 형식, 비형식, 무형식이라는 도식적 구분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을 탐구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진화와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는 학습생활의 양상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자력학습에 대한 사례 연구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대중(2009). 평생학습 연구 방법으로 학습생애사의 의의와 가능성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1). 201-223.
- 김신일(2005). 학습시대의 교육학 패러다임. 김신일, 박부권(편). **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61-102.
- 아고라페인(2008).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서울: 여우와 두루미.
- 일간스포츠(2009.7.1.). [미네르바 경제이야기 ①] 2009년 7월 한국 경제를 말한다.
- 장상호(2000). **학문과 교육 (하): 교육적 인식론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민승(2004). **사이버 공간과 평생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 정민승(2010). **인터넷 평생학습으로 읽기**. 파주: 교육과학사.
- 조용환(1997) **사회화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조희정, 강창묵(2009). 네트워크 정치와 온라인 사회운동: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2(3). 311-332.
- 천정환(2008). **대중지성의 시대**. 서울: 푸른역사.
- 팔란티리 2020(2008).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로 간다**. 파주: 웅진씽크
- 허준(2012). 온라인 사회운동의 출현에 따른 사회운동학습 담론의 확장 가능성. **평생교육학연구** 18(3). 141-165.
- Aberton, H.(2008). Capturing ‘free-range’ learning outside the academy: researching women’s informal networked learning in community contexts. In Crowther, J. Edwards, V., Galloway, V., Shaw, M & Tett Lyn(editors) *Proceedings of the 38th SCUTREA Annual Conference*(pp.19-26). Edinburgh: University of Edinburgh
- Caffarella, R. S.(1993). Self-directed learning. In S.B.Merriam (Ed.), *An update on adult learning theory* (pp.25-36). *New Direc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57. San Francisco: Jossey-Bass.
- Castells, M. 김목한, 박행웅, 오은주 역(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파주: 한울 아카데미.
- De Laat, M., & Lally, V. (2004). It’s not so easy: researching the complexity of emergent participant roles and awareness in asynchronous networked learning discussion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0(3), 165-171.
- De Wever, B., Van Keer, H., Schellens, T., & Valcke, M. (2009). Structuring asynchronous

- discussion groups: the impact of role assignment and self-assessment on students' levels of knowledge construction through social negotiation.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5(2), 177-188.
- Drotner, K., Jensen, H. S., & Schröder, K. (Eds.). (2008). *Informal learning and digital media*. Newcastle, UK: Cambridge Scholars.
- Edwards, R., Gallacher, J. & Whittaker, S.(Eds.)(2006). *Learning outside the Academy*. New York: Routledge.
- Friedman, T. L., 김상철, 이운섭, 최정임 역. (2006). **세계는 평평하다**. 서울: 창해.
- Gee, J. P. (2010). *New digital media and learning as an emerging area and "worked examples" as one way forward*. Cambridge, MA: The MIT Press.
- Gray, B. (2004). Informal learning in an online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9(1), 20-35.
- Gunawardena, C. N., Lowe, C. A., & Anderson, T. (1997). Analysis of a global online debate and the development of an interaction analysis model for examining social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computer conferencing.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17, 397 - 431.
- Henri, F. (1992) Computer conferencing and content analysis. In A. R. Kaye (Ed.),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computer conferencing: The Najaden Papers* (pp. 116-136). Berlin: Springer-Verlag
- Hollenbeck, C. R.(2005) Online anti-brand communities as a new form of social action in adul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 University of Georgia.
- Hollenbeck, C. R. & Zinkhan, G. M. (2010). Anti-brand communities, negotiation of brand meaning, and the learning process: The case of Wal-Mart. *Consumption Markets & Culture*, 13(3), 325 - 345
- Ito, M. et al. (2010). *Hanging out, messing around, and geeking out: Kids living and learning with new media*. Cambridge, MA: MIT Press.
- Kang, D. J., Choi, S. J., & Lee S. (2012). Emergence of informal educative space out of an anonymous online bulletin board in Korea dur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DOI:10.1080/02601370.2012.736415.
- Kidd, T. T. & Keengwe, J. (2010). *Adult learning in the digital age: Perspectives on online technologies and outcomes*. Hershey, PA: Information Science Reference.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2005).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6th ed.). Boston: Elsevier.
- Levi, P. 권수경 역 (2006). *집단지성: 사이버 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지성사.
- Merriam, S. B. (2001). Andragogy and self-directed learning. *New Direction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89. San Francisco: Jossey-Bass.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ichael, L. (2008). Autodidactic learning and reasoning.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Preece, J. & Shneiderman, B. (2009). The reader-to-leader framework: motivating technology-mediated social participation. *Transactions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1 (1), 13-32.
- Selwyn, N., Gorard, S., & Furlong, J. (2006). *Adult learning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learning society*. London: Routledge.
- Solomon, J. (Ed.)(2003). *The passion to learn: An inquiry into autodidacticism*. London: Routledge Falmer.
- UNESCO(1985). *Forth World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Final Report*. Paris: UNESCO

- 논문 접수 2012. 10. 30 / 수정본 접수 12. 18 / 게재 승인 12. 30
- 강 대 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평생교육전공)를 받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성인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연구 관심은 평생학습이론, 질적연구와 학습생애사,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평생교육 프로그램·제도·정책 등임.
- 최 선 주: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함. 연구 관심분야는 한국의 성인 학습자, 입시경쟁체제와 학습생애경로, 시민들의 자발적 학습네트워크 등임.
- 이 승 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평생교육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수료함. 관심분야는 평생학습이론, 학습생애사, 디지털미디어와 평생교육 등임.

Abstract

A study on learning life of autodidactic internet disputants

Kang, Dae Joong(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Seon Joo(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eung Hyeop(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dvent of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has rendered the emergence of internet disputants who can be referred as a new kind of intellectual. As a typical example, in 2008 many internet disputants appeared at a bulletin board called Agora Economy Room which is housed in the Korean portal site Daum in response to global economic crisis. What is interesting is that majority of disputants were autodidacts who learned expert knowledge without formal higher education. Research into autodidact is meaningful to adult and lifelong learning field because it follows the tradition of paying attention to learning practices which occurs beyond formal education.

In this sense,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learning life of internet disputants who educated themselves. Internet disputants shared similar learning motivation which stems from social context of economic crisis. Also, as autodidacts, they were equipped with great self-management skills for their learning. Although they were autodidacts, their learning were influenced highly from the internet bulletin board contexts. Their learning outcomes were not limited to online contexts. They even published books as a result of their learning life. By exploring the learning life of internet disputants we were able to find out that autodidacticism which means 'self-learning' is not independent from technological,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 Key words: autodidactic learning, learning life, internet disputants, online learning, informal learning